KHNMC DOCTOR

소화기내과
신현필 교수

전문진료분야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간암

소화기외과
주선형 교수

전문진료분야

간암,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간이식, 신장이식, 복강경 수술

문의 : 02-440-7033

환자의 예후는 수술실에서 결정
완벽한 수술로 합병증 최소화

"돌아보면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부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환자들이 다 알아서 좋아지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선형 교수는 겸손하게 자세를 낮췄지만 좋은 성적에는 분명 비결이 있을 듯했습니다.
"외과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성실성입니다. 자기가 편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선형 교수는 의대 본과 3학년 때 외과 실습을 돌다가 수술실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는데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났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걸 계기로 외과 전공을 선택했다는 뜻밖의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단순히 오기 때문은 아니었을 테고, 외과의 어떤 점에 끌렸던 것일까요?
"외과의 매력은 제가 개입해서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암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그것을 수술로 상당 부분 완치까지 돌려놓을 때 쾌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식수술입니다. 이식환자는 수술을 안 하면 사망하잖아요. 이식에 성공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요. 수술 후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환자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 뿌듯합니다."

이제는 학생 시절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만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수술을 추구하는 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일단 외과의사는 수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완벽해야죠.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요. 모든 환자의 예후는 수술실에서 결정됩니다. 수술이 잘되면 환자가 나빠질 일이 많지 않습니다. 수술할 때 미진한 구석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선형 교수는 첼로 연주가 취미라고 했습니다. "첼로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톤을 내는 악기입니다. 울림이 바로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따뜻하게 전해지는 울림에 끌렸다는 것인데, 평소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술에 임할 때는 냉철하게 칼을 잡고 철두철미 완벽을 기하지만, 그 가슴은 언제나 따뜻하게 사람을 향하는 의사. 이런 드림팀이라면 간암 정복의 그날도 멀지 않았다고 기대합니다.

www.khnmc.or.kr
www.facebook.com/khnmc2006
blog.naver.com/khnmc06
www.youtube.com/user/KHNMC2006

강동경희대학교병원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 대표전화 : 1577-5800

드림팀, 간암 정복의 최전선에 서다

간암 및 간이식팀

소화기외과 주선형 교수
소화기내과 신현필 교수

- 간암은 **간염 관리와 치료가 중요**
-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수
  간암 치료는 **간질환의 사후관리가 중요**
- **주치의이자 동반자**로
  환자와 평생을 함께해
- **국내최초 성인 동소성 부분 보조 간이식**
  간·신장 동시이식도 성공
- 환자의 예후는 수술실에서 결정
  완벽한 수술로 합병증 최소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외과 주선형 교수, 소화기내과 신현필 교수

흔히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큰 탈이 나기 전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궂은일을 묵묵히 도맡아 하는 맏형 같다고나 할까요? 감소 추세라고는 하나 간암 발생률이 5위이고 사망률이 2위나 된다는 사실을 접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든든하게 믿었던 장기이니만큼 더욱 두렵습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목련교수 간암 및 간이식팀을 찾았습니다. 소화기내과 신현필 교수와 소화기외과 주선형 교수로 구성된 드림팀이라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았습니다. 차세대 명의를 육성하기 위한 목련교수 1기로 선정된 팀이니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간암은 간염 관리와 치료가 중요

"간암은 위험군이 명확합니다. 만성 B형 및 C형 간염과 간경변증 환자가 간암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간경변증은 만성 간염이나 음주가 원인 입니다. 간염–간경변증–간암으로 연속되는 간질환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길목인 바이러스성 간염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입니다."

소화기내과 신현필 교수의 주된 관심 분야도 간염입니다.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의학부문에 등재된 전문가입니다. 간염에 관해 좀 더 들어봤습니다.

"B형 간염은 신생아 때 감염되면 대부분 만성 간염으로 넘어갑니다. 옛날에 B형 간염 환자가 많았던 것은 바로 엄마–아기의 수직감염 탓입니다. 지금은 출산 후 예방조치로 수직감염의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성인은 95% 정도가 만성으로 진행하지 않고 치유됩니다. B형 간염은 출산 후 조치로 수직감염이 차단되고, 예방 백신으로 다시 걸려지는 데다, 백신을 못 맞았더라도 만성화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계속 감소할 겁니다. 만성 간염이라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신약의 내성 발생률이 매우 낮아서 간염 바이러스를 잘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C형 간염은 수직감염이 적은 대신, 예방 백신이 없는 데다 만성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최근까지는 치료제의 효능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간염 전문의들이 우려했던 것은 C형 간염이었습니다. 저 역시 미국 버지니아 메이슨 병원에 연수를 갔을 때 C형 간염에 관련된 임상연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사제 기반의 치료를 했는데 부작용이 많은 반면 효과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먹는 약만으로 치료 기간이 단축되었고 성공률이 90%가 넘어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수
간암 치료는 간질환의 사후관리가 중요

간경변증과 간암의 특별한 위험군이 있다는 것은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가능하니 어떻게 보면 긍정적입니다. 백신과 신약 덕분에 만성 간염의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라니 더욱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약을 먹는 감염자는 약이 잘 듣는지, 내성이 생기지 않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도 고혈압처럼 계속 먹어야 합니다. 둘째, 약을 먹지 않는 감염자라도 간염이 언제 다시 활동기로 가거나 활성화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약을 먹든 안 먹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간경변증이나 간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지어 간염약을 먹는 중에도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암 환자는 간염이나 간경변증 등 간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술이나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과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이후에는 내과와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서 간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환자 개개인을 세세하게 배려하고 케어하려면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의료진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우리 팀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치의이자 동반자로 환자와 평생을 함께해

"간질환은 간염에서 시작해서 간경변증, 간암으로 연속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일회적인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자를 일생에 걸쳐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 인간적인 신뢰가 없으면 진료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평생의 주치의이자 동반자라고 할 수 있죠."

소화기내과
신현필 교수

간염 환자는 평생 병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은 데다 예전에는 수직감염이 많아서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환자인 경우가 흔합니다.

"처음에는 환자 한 분만 와서 진료하다가 저에게 믿음이 생기면 다른 가족도 같이 오십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큰일인데 결국 가족 전체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게 되는 거죠. 맡은 책임의 무게가 작지 않지만 환자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서 보람도 느낍니다."

국내 최초 동소성 부분 보조 간이식 수술
간 · 신장 동시이식도 성공

주선형 교수의 첫인상은 푸근했습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초기부터 신생병원으로서는 획기적인 이식수술을 연달아 성공한 외과의사라는 사실도 잠시 잊을 정도였습니다. 2006년 12월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했고, 2008년 2월에는 국내 최초로 성인 대사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동소성 부분 보조 간이식 수술(APOLT)에 성공했습니다.

"경희학원 산하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시행한 간이식 수술이었습니다. 그것도 간 전체를 이식하는 통상적인 방법과 달리 일부만을 떼어내고 같은 자리에 해당 부위를 부분 이식하는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효소가 결손되는 요소회로 이상증(Urea Cycle Disorder)을 앓는 성인 환자였어요."

당시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동소성 부분 보조 간이식 수술은 4건밖에 없었습니다. 성인 대사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이번이 최초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도 51례에 불과했고 대사장애 환자는 5건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에게 시행된 간이식 수술 중에서 이식편의 용적이 가장 작았습니다. 수술의 실효성과 성공이 불투명했지만, 이식받은 환자가 수술 4일 후에 식사 및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습니다. 수혜자인 오빠와 공여자인 여동생 모두 상태가 좋은 덕분에 가족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활짝 웃었다고 해서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2014년에는 간–신장 동시이식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에서는 최초였습니다. 간과 신장을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은 전국적으로 1년에 20례가 되지 않습니다. "그 환자분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에 만성 신부전이 같이 와서 간과 콩팥이 모두 망가진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를 처음 봤을 때 과연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해서 지금은 업무에도 복귀하셨어요."

주선형 교수의 연이은 이식수술 성공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HOPO)으로 지정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은 뇌사자의 관리, 장기 적출 및 이식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최상위 이식 의료기관입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간이식 수술이 양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자랑합니다. 이식수술 후에 사망한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소화기외과
주선형 교수